

심동섭 퓨처스리그서 복귀 '시동'

군 전역 후 두 번째 실전 등판
"잘 준비해 1군 마운드 서겠다"

좌완 심동섭이 퓨처스리그에서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심동섭은 지난 8일 두산 베어스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전역 후 첫 실전을 치렀다. 이날 심동섭은 1이닝을 던지면서 2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지만 3개의 안타를 맞으면서 1실점을 했다. 그리고 16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두 번째 피칭에 나섰다. 첫타자 권희동을 4구째 유격수 땅볼로 잡은 심동섭은 전민수는 5구째 삼진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최상인은 3구째 2루 땅볼로 잡고 1이닝을 삼자범퇴로 마무리했다. 더딘 걸음이지만 심동섭은 복귀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심동섭은 지난 8월 말 팀에 재합류했다. 그리고 차근차근 복귀 준비에 나섰지만 지난겨울 운동을 하다가 발가락 골절 부상을 입으면서 복귀 시계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재활에 나섰지만 오랜 시간 심동섭을 괴롭혔던 어깨 통증이 또 문제가 됐다. 돌고 돌아 다시 마운드에 오르게 된 만큼 공 하나 하나에 간절함이 담겼다. 심동섭은 16일 경기가 끝난 뒤 "오늘 생각보다 어색한 감이 많이 없었다. 항상 경기 올라갔던 것처럼 익숙했던 느낌이 들었다. 어깨도 생각보다 괜찮아진 것 같다. 안 아프고 잘 던진 것 같다"며 "백런스는 나쁘지 않다. 어깨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과도 좋았던 만큼 더 만족스러운 등판이 됐다. 심동섭은 "시합이나 잘 던지고 싶다. 지난 경기에도 빗맞은 안타도 있고 나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내용도 많이 괜찮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같은 컨디션 유지하면서 다시 1군 무대에서는 게 심동섭의 바람이다. 심동섭은 "군복무를 하면서 2년 쉬었는데 어깨가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응원 많이 해주고, 관리도 잘 받고 있다. 재활 파트에서 필요한 쪽으로 잘 관리해주셔서 몸을 잘 만들어서 던지고 있다"며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어 하셔서 꼭 재기해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 지금 던지고 있는 게 감사하고 행복하다. 잘 준비해서 다시 1군 마운드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타석에서는 나지완과 류지혁이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4월 29일 원 내복사근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나지완은 이후 세 차례 퓨처스리그 경기에 나섰지만 부상이 악화하면서 다시 방망이를 내려놓았다. 류지혁은 지난 5월 22일 오른쪽 내복사근 부상으로 재활군이 됐다. 이날 류지혁은 2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했고, 나지완은 4번 지명타자로 자리했다. 류지혁과 나지완은 각각 3타석씩 소화했다. 류지혁은 안타 없이 2루 땅볼, 3루 땅볼 그리고 우익수 플라이를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나지완은 이후 두 타석에서는 유격수 플라이와 헛스윙 삼진을 남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6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33)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김광현 호투 ... 동반 승리는 실패

류, 양키스전 6이닝 3실점
김, 말린스전 6이닝 1실점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올 시즌 두 번째로 선발 동시 출장했다. 하지만 두 선수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동시에 승리 투수가 되는 장면은 또다시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류현진은 16일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을 3실점으로 막았다.

허리 통증을 극복하고 11일 만에 돌아온 김광현은 안방에서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두 투수 모두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에 성공했으나 승수 쌓기에는 실패했다. 류현진은 5-3으로 앞선 7회초 안토니 카스트로에게 마운드를 넘겼고, 카스트로가 곧바로 동점을 허용해 승패 없이 경기를 마쳤다. 아쉽게 승리투수 요건을 날린 류현진과 달리 김광현은 0-1로 뒤진 6회말 타선이 동점을 만든 덕분에 간신히 패전을 벗어났다. /연합뉴스

이의리, 도쿄올림픽 간다



야구 국가대표 '김경문호' 승선
"금메달 획득에 도움 되겠다"

생일날 이의리가 '올림픽 티켓'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KIA 타이거즈의 좌완 이의리가 16일 발표된 2020 도쿄올림픽 야구 국가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루키' 이의리를 포함해 투수 10명, 포수 2명, 내야수 8명, 외야수 4명 등 총 24명으로 '김경문호'가 꾸려졌다. 투수는 조상우·한현희(이상 키움), 최원준(두산), 고영표(KT), 고우석(LG), 박세웅(롯데), 원태인(삼성), 김민우(한화) 등 우완 8명과 이의리와 차우찬(LG) 등 좌완 2명으로 구성됐다. NC 양의지와 함께 삼성 강민호가 포수 포지션에 이름을 올렸고, 1루수는 강백호(KT)와 오재일(삼성), 2루수는 박민우(NC)와 최주환(SSG)으로 구성됐다. 3루수는 허경민(두산)과 황재균(KT), 유격수는 오지환(LG)과 김해성(키움)이 맡는다.

외야는 김현수(LG), 박해민(삼성), 박건우(두산), 이정후(키움)가 담당한다. 이의리가 신인으로 유일하게 처음 대표팀에 승선했고, 최원준, 고영표, 박세웅, 원태인, 김민우, 김해성, 오재일, 최주환도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현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명단에서 제외됐고, 올 시즌 KBO리그에 복귀한 추신수(SSG)와 베테랑 오승환(삼성)의 이름도 빠져있다. 이의리는 "생애 처음 국가대표팀 선발이다. 예상 못 했던 일이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열심히 해서 금메달 획득하는데 도움 되도록 하겠다. 겸손하게 많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윌리엄스 감독도 "이의리에게 좋은 생일 선물이

도쿄올림픽 한국 야구대표팀 명단



것 같다. 오늘 경기에도 나서고 좋다"고 웃었다. 이의리는 이날 SSG와의 더블헤더 2차전 선발로도 출격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좌완투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험 있는 선수를 데려가느냐, 젊은 투수를 데려가느냐를 놓고 마지막 결정이 이뤄졌을 것 같은데 이의리에게는 환상적인 결과가 됐고 좋은 기회"고 이야기했다. 또 "개인적으로 올림픽을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국가대표 옷을 입고 출전할 기회는 있었다. 좋은 경험이었다.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영광스러웠다"며 "타이거즈라는 이름과 태극기를 달고 뛰는 것은 다른 느낌일 것이다.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상한 올림픽일 수도 있겠지

만 이의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즐기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외야수 최원준과 마무리 정해영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두 선수가 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아직 올림픽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부상이나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KIA에서는 이의리와 함께 김종국 수석코치, 진갑용 배터리 코치가 도쿄올림픽에 참가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도쿄올림픽 코로나19로 결승전 기권하면 '은메달'

IOC, 비상 계획 수립

다음 랭킹 높은 선수가 출전

다음달 열리는 도쿄하계올림픽에서 결승에 오른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선수는 금메달이 걸린 결승전을 기권하는 대신 은메달을 받는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더게임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회 기간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을 가정한 비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전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IOC는 기존과 약간 다른 '스포츠 특별 규정'을 준비했다. 종목별 국제연맹(IF)은 이

번 올림픽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킷 매코널 IOC 스포츠국장장은 스포츠 특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더는 출전할 수 없는 선수는 '실격'이 아니라 '미출전' 선수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이 선수나 팀의 전적인 실수가 아니라라는 뜻에서 실격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코로나19 확진 선수가 경기를 기권하면 그다음 랭킹이 높은 선수가 대신 출전한다. 가령 토너먼트로 치러지는 단체 경기에서 4강에 오른 팀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면, 이 팀에 8강에서 진 팀이 4강에 대신 출전하는 방식이다. IOC는 결승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나 팀에 이미 이론 업적에 상응하는 은메달을 주기로 했다. IOC는 경쟁의 본질을 수호하고 올림픽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회 일정인 긴 테니스나 배드민턴과 같은 종목에선 코로나19에 걸려 결승전 미출전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1회전부터 결승까지 하루에 모두 끝나는 유도나 같은 경기에선 코로나19 확진 선수를 일률적으로 다른 선수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매코널 국장은 예상했다. 한편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회 참가 선수-지도자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집인 '플레이북' 3차판을 15일 배포했다. 참가 선수들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하면 경기 참가 자격 박탈, 금전 제재와 함께 최악에는 국외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